

종영 드라마 MBC '역적' 채수빈 “현 시국과 맞아떨어진 ‘백성의 힘’ 메시지 뿌듯”



**작품위해 노래·붓글씨 배워
차기작 ‘최강 배달꾼’ 결정
“쉬지 않고 연기하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드라마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나와 있었는데, 현 시국과 맞아떨어졌어요. ‘역적’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백성의 힘’인데, 그 메시지가 현실과도 딱 맞아 부딪혔어요.”

최근 종영한 MBC TV ‘역적’에서 홍길동(윤균상 분)의 아내이자 민초와 세상을 바꾼 홍기네 식구의 홍일점 가령을 연기했던 배우 채수빈(23)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길동이 ‘임금 같아지옵시다’고 했을 때부터 마지막에 연산한테 ‘폭력은 겁쟁이들이 쓰는 것’이라며 연산의 죄목을 ‘능상(廢上)’이라고 알려주는 장면까지 소름이 돋았다”고 강조했다.

가령은 연산군 시대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한 길동과 달리 허구의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가장 시청자의 심금을 울린 캐릭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채수빈은 가령의 인기에 대해 “워낙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아요”며 “저도 연기하면서 ‘뭘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극 초반에서도 남의 남자를 탐내지 않고 지고지순하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고 단단하죠. 그래서 ‘직진 가령’이에요. 처음에는 자신보다 길동을 더 사랑하는 가령이를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몰입할수록 가령이는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밈없고 솔직담백한 가령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낸 덕분에 아모게 역의 김상중도 공개 석상에서 채수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채수빈은 “선배님께서 실제 아버지처럼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신 데 이어 칭찬까지 해주시니 참 감사했다”고 말했다.

채수빈은 극 중 가장 슬펐던 신으로는

인질로 잡힌 가령이 장대에 매달려 ‘서방’을 부르는 장면, 제일 행복했던 신으로는 길동과 혼례를 치르는 장면을 꼽았다.

그는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춘 윤균상에 대해 “당치 차이는 어마어마했지만, 워낙 저를 잘 받아줘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화면에도 예쁘게 나왔다”고 말했다.

윤균상의 키는 187cm, 채수빈은 167cm이다.

채수빈은 또 “전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는 짝사랑만 했는데, 그때 받지 못한 사랑을 ‘역적’을 통해 다 받아 위로도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역적’을 통해 행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로 또 한 번 호흡 받았다.

“처음에는 이마를 휘히 드러내는 쪽진 머리가 못생겨 보일까 봐 걱정했는데 요즘은 일반 머리를 하는 게 더 어색한 것 있죠?”

그는 인터뷰 날에도 머리를 양 갈래로 땀고 왔다.

채수빈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다고 자랑했다.

“일단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사랑이라고’를 불렀죠. PD님께서 극 중 ‘어이 얼어자리’를 부르는 걸 보고 OST도 도전해보라 하셔서 1주일 만에 녹음했어요. 노래 연습은 녹음 역의 (이)하니 언니가 국악을 전공한 덕분에 선생님들을 소개해주시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극 중 가령이는 내레이터이기도 하잖아요. 붓을 들고 ‘홍길동전’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 붓글씨 연습도 했죠.”

2014년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로 데뷔해 각각 6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채수빈은 이제 한참 연기에 욕심을 부릴 때다. 차기작도 KBS 2TV ‘최강 배달꾼’으로 벌써 정했다.

“이제 연기 4년 차인데, 돌아보면 벌써 추억이 많아요. 가령이를 비롯해 제가 연기했던 많은 캐릭터의 삶이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남아있으니까요. 다양한 삶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데 굉장히 감사해요. 쉬지 않고 계속 인사드리고 싶어요.”

연남뉴스



김장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욕설 파문

“언행 부적절...사과드립니다”

가수 김장훈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모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욕설을 해 파문이 일자 “저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좋은 마음으로 오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추모 무대에 올랐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저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문화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날 경찰과 주차문제 시비가 붙었던 일을 소개하며 비속어를 섞은 욕설을 뱉어 논란이 됐다.

그가 “일단은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XX 진짜”, “아, X새끼들 진짜.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라고 욕설한 영상은 삼시간에 인터넷에 퍼지며 비난이 쏟아졌다.

김장훈은 이 글에서 “도착해서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거칠게 싸웠습니다”라며 “집에 오면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제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고 가만히 돌아켜보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매우 황당하고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제단과 주최측,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추모식을 가버리 여겨 그런 행동을 한 건 절대 아니며 전후 사정도 이야기했다. 그는 “경찰 한 분이 매우 화를 내면서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라며 주최측이 인도하는 대로 차를 뺐지만 계속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입에서 욕이 나갔고 한 경찰이 동영상 찍기래 자신도 같이 찍으며 영상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무대에서) 내려와서 젊은 경찰관과 서로 미안해하면서 포옹도 하고 나니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러분께 비난을 듣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질지도 합니다”라며 “욕먹어 마땅합니다.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워한 분의 추모공연에 8년 만에 처음 오르게 되었는데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연남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윤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가정의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이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의 힘을 흔친 도적>(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크 공감(재) 55 감성투 고맙습니다 스페셜	0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 특집 파워인터뷰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타지인 55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10 키즈 사이언스6 55 파워배틀 외지키(재)	35 위대한 유산(재) 55 닥터 365
2	5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랑과 사람들(재)	25 뚝?뚝!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숨터(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예선 <프랑스: 온두라스>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에콰도르: 미국>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00 2TV 생생정보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이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쌈, 마이웨이>	00 월화 드라마 <피수관>	00 월화드라마 <갯속말>
11	00 KBS 뉴스 40 해외걸작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7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35 비바 K리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캄보디아 어시장>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세상의 모든 시간 타기 1부 자연과 인간의 경이 카탈코이아>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미국의 여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연어양파 달걀과 참깨소스 시금치>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몽 3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재)	16:30 두다다콩(재)
07:45 출동! 슈퍼핑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땀땀 땀땀 1~2(재)	17:15 엄마 까투리
08:00 땀땀 땀땀 1~2	12:40 평등채널e	17:30 꼬마심사 타오(재)	17:45 꼬마심사 타오(재)
08:30 꼬마심사 타오	12:45 과학 다크 비온드 (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토크! 코리아1~4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9:00 강철소총대 피기어로보	
09:00 방귀대장 뽕뽕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27일 己酉)	
子	48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긴요한 문제이다. 72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84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4, 09	午	42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4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라. 66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78년생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정황이다. 90년생 실속 있고 유력하다. 행운의 숫자 : 30, 47
丑	49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61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73년생 실재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5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0, 76	未	43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55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67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좌충 우돌할 뿐이다. 79년생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91년생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3, 38
寅	50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니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자. 62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74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86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2, 26	申	44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56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68년생 실제로라든가 원신 돈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3, 69
卯	51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63년생 전반적으로 평결한 운로이니 이전과 대응소이다. 75년생 돈이 전부기 아님을 알아야 한다. 87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79, 22	酉	45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알는 바가 있느니라. 57년생 아주 가까이와 있으니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하자. 69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81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86, 94
辰	52년생 평상시에 회구하여 왔던 기상이 실제의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64년생 다수인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76년생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88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행운의 숫자 : 33, 88	戌	46년생 더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58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70년생 분능적이라면 손해 보기 마련이니 이성적 판단에 따르라. 82년생 하소연 할 곳을 찾게 되는 억울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5, 34
巳	53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65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77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명심하자. 89년생 지나치다 보면 먼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5, 86	亥	47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59년생 즉응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71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83년생 무리가 따르나 행하지 않아야 좋다. 행운의 숫자 : 15,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